

조선대도 의대 지역인재 ‘전북 포함’

전북대 의대 전북에 국한 ‘대조’ 역차별 우려 “광주·전남 학생 불이익...지역범위 조정돼야”

전남대학교에 이어 조선대학교도 의학 계열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전북까지 확대했다. 전북대가 의학 계열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전북으로 국한한 것과 대조적이어서 광주·전남 학생들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조선대는 2022학년도 의대 정원 129명 중 38%인 49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조선대는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2021학년도까지 광주·전남으로 국한했으나 2022학년도부터는 전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대의 경우 수년전부터 의대 지역

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광주·전남·전북으로 정했었다.

전남대는 2022학년도 의대 정원 125명 중 41%인 51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2023학년도에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1%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전북대 의대는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전북으로 국한하고 있어 지역 교육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북대는 2022학년도 의대 정원 142명 중 53%인 75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의학 계열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은

지역전형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에게 주어진다. 올해 기준 고3 학생 수는 광주 1만 5,000여명, 전남 1만 6,000여명, 전북 1만 7,000여명으로 광주·전남이 전북보다 82%가량 많다.

하지만 지역인재전형기준에 조선대와 전남대는 전북을 포함한 반면, 전북대는 전북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전북지역 학생에 비해 광주·전남 학생들의 경우 선택의 폭이 좁아져 지역 역차별이란 지적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 교육청 관계자들은 올 상반기 전남대를 찾아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전북까지 확대한 데 대해 시정을 촉구했고, 전북대를 방문해서는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광주·전남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 반면, 전북대 관계자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전남대에 이어 ‘민립대학’을 자처하는 조선대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전북까지 확대함으로써 광주·전남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전남대와 조선대는 전북대를 설득해 지역 범위를 호남권으로 정하든지, 전북대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지역 범위를 광주·전남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대 관계자는 “인재를 폭넓게 구하고자 의대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올해부터 전북까지 확대했다”며 “광주·전남 지역 대입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23학년도에는 53%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전남교육청 맞춤형 교육 추진 유·초·중·고 학습 결손 극복

88억 투입 심리회복 등 지원

전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결손 극복을 위해 맞춤형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장석웅 교육감은 13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유튜브 채널(전남교육TV)을 통해 비대면 정책브리핑을 갖고 ‘전남교육청 교육회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결손과 학력저하, 학생 간 학력격차는 물론 심리·정서 등의 결손에 대한 종합적·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교육회복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희망을 반영한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만 8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초등학교는 학생별 교과에 따라 맞춤형 지도가 이뤄지는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을 전 학년에 걸쳐 980학급 운영한다. 중학교에서는 성과평가 결과 분석을 토대로 개인별 학습 지원을 하는 ‘학습력 키움 3UP’ 프로그램을 전체 248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등학교는 기본 학력 향상 및 선택형 교과 보충을 해주는 ‘학력 레벨업’ 프로그램을 일반계 고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들 교과보충학습 프로그램은 학기중

에는 방과후에, 그리고 방학중에도 운영되며 올 하반기 6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교대·사대생을 활용한 대학생 멘토링제를 통해 소규모 학생 학습보충 및 상담, 환류 등을 지원하고 1대1 학습 컨설팅, 가정과 연계한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AI튜터를 운영한다.

학생의 몸과 마음 건강회복 지원을 위해 심리지원 프로그램 및 방문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학생 자살예방을 위해 생명지킴이, 즉 ‘게이트키퍼’ 전문가를 양성해 위기 학생의 심리지원에 나선다. 특히, 위기학생 치료를 위해 개인 치료 및 가족 상담비를 각 100만원씩 지원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

유아, 직업계고, 취업계충을 위한 맞춤형 교육회복 지원책도 마련했다. 유아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 발달지원 및 언어발달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에게는 50만원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고, 졸업생을 실습보조강사로 활용하는 실습지원 멘토링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단순히 코로나 이전의 일상 복귀가 아닌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원격교육 플랫폼을 확대하고, 에듀테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나라 기자

신생아 유기 20대 여성 입건

여수경찰서는 13일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A씨(20·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께 여수시 한 다세대주택 화장실에서 낳은 여자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거주지 주변에 버려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같은 날 오후 1시 42분께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산후조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12~17세 백신접종 방안 검토

교육부가 올 4분기(10~12월)로 추진 중인 12~17세 아동·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인 의사에 기반해 이뤄졌다”며 “12~17세 연령대로 마련하자”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이날 중 구체적인 접종 대상과 시기 등을 포함한 12~17세 아동·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시작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13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전남경찰, 22일까지 ‘특별치안활동’ 전개

광주·전남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이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0일간 치안 활동을 전개한다.

13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이일부터 22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에 나선다. 명절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현금 취급 업소 1,814개

(편의점 995개, 금은방 251개, 금융기관 568개)와 원룸 및 다세대 밀집 지역에 대한 정밀 방범진단을 벌인다. 취약한 곳은 중점관리 점포와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CCTV통합 관제센터에도 통보해 취약시간대 집중관제한다.

특히 명절 연휴는 평상시보다 112신고와 가정폭력 신고가 집중됨에 따라 추석 연휴 전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 ‘위험성조사회’를 활용해 긴급입시조치 결정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도 특별치안활동에 나선다. 추석을 앞둔 1단계(13~17일)에는 빈집털이 예방을 위한 순찰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며, 2단계(18~22일)에는 지역경찰과 형사, 경찰관 기동대 경찰력을 최대 동원해 협력단체와 함께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최환준 기자

시교육감 후보예정자 인지도 제고 온힘 명절 앞두고 이색 홍보 현수막 게첨 지역민 관심 끌기 공략

광주 지역 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다가온 추석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에 홍보용 현수막을 내거는 등 내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인지도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화정사거리 등 시내 곳곳에 내년 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 이름 알리기용 현수막을 게첨했다. 단 선거법 위반을 의식한 듯 교육감 선거 출마에 대한 직접적 문구는 사용하지 않았다.

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경우 선거 180일 이전(오는 12월2일)까지는 자신의 사진이나 이름을 현수막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명절 전후 현수막을 통해 의례적 수준의 인사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취지의 글귀나 한가위 인사로 홍보 문구를

대신하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 A씨는 가을철 과일과 자신의 이름을 이미지화하는 이색전략을 펼쳤다.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이름 알리기에 나선데는 나름의 고충이 담겨 있다. 시장이나 구청장 등 단체장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이다. 교육계 종사자나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등 직간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교육감선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직 교육감이나 유명 정치인 출신이 아닌 이상 인지도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입후보자들의 공통적 생각이다.

모 입후보 예정자는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총 100장의 현수막을 광주시내에 내걸었다”며 “현수막 말고는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나라 기자

상무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40평(전용) 2억 5천(용1억) 보1천 월100 2) 60평(전용) 4억 5천(용3억) 보2천 월200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 (용 4억) 월수익 280만 (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투자확신/강력추천! 광주에서 20분 (6M 도로접) 장성담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200평,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 월수익 750만 ◆ 연수익 9천만 ◆ 매매 13억 (용6억 5천) ▶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 엘지정유, 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 있음, 주인세대있음. 010-6670-9800	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 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 •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 광주 서구 치평동(아파트) ▶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9/14) 광산구 도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2억3천 (9/16) 북구 문흥동(근린상가) ▶ 감정가 13억4천 → 최저가 1억5천 (9/17) 북구 신용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9/17)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14억9천 → 최저가 6억6천 (9/28) 전남 화순군 도곡면(근린시설) ▶ 감정가 10억 → 최저가 5억9천 (9/16) 화순군 백야면 (근린시설) ▶ 감정가 13억 →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기동(근린주택)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향통면 (공장) ▶ 감정가 68억 →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 감정가2억7천 → 최저가7천 (10/12) 시외 충남 홍성군 장곡면(근린주택) ▶ 감정가6억3천 → 최저가2억1천 (9/14) 부안군 변산면(숙박시설) ▶ 감정가 4억 5천 → 최저가 2억 2천 (9/27) 062-382-5500